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모잠비크LNG선 17척 확정 계약 시점 9월로 연기

TotalEnergies가 주도하는 모잠비크 LNG프로젝트에 투입될 LNG선 17척의 확정 계약 시점이 5월말에서 9월로 연기됨. 이에 인도기한도 2024년 2분기로 연기됨. 계약금액은 총 30억달러가 넘는 규모로 보도됨. MOL과 K Line이 현대삼호중공업에 각각 5척, 4척을 예약, NYK와 Maran Gas Maritime은 삼성중공업에 각각 4척씩 예약해둔 상황임. (선박뉴스)

美LNG수출 처음으로 호주 추월

금년 5월 한달만 놓고 보면 미국의 LNG수출이 660만t, 호주는 590만t로, 처음으로 호주를 추월함. 미국의 5월 수출은 yoy +76.7% 증가했으나, 호주는 -4.3%로 감소했음. (선박뉴스)

Capesize rates expected to stay around \$40,000 for third quarter

Capesize 벌크선 스팟운임이 7월 4만달러/일을 기록하고, 3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Baltic Exchange에 따르면, 6월 8일 capesize 5TC 스팟운임은 \$29,383/일에서 이미 48% 인상된 바 있음. (Tradewinds)

IMO agrees carbon reduction targets despite US and EU opposition

국제해사기구가 2023-2026년 동안 선박의 탄소집약도를 매년 2%씩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결함. 탄소집약도를 오는 2030년까지 40%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됨. (Tradewinds)

Chinese military orders pressuring orderbook and could help tankers

중국 국방부 발주로 탱커시장 호황을 전망함. AXS Marine research에 따르면 중국 정부도 군사용 선박을 갖출 것을 촉구함. 현재 한국, 중국 조선소의 경우 야드 부족으로 2023-2024년 인도는 어려워보임. (Tradewinds)

VLCCs stay in doldrums as crude in-transit to China falls to lowest in three years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인 중국이 수입량을 줄이며 VLCC시장이 침체되고 있음. Vortexa에 따르면, 중국 원유수입량은 3년래 최저치인 3,550만톤/일을 기록함. 전년동기 6,460만톤/일을 기록한 바 있음. (Tradewinds)